

#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치매지식 및 태도와 연령주의 중심으로

김두리<sup>1\*</sup>, 이서영<sup>2</sup>, 이송희<sup>2</sup>, 이예주<sup>2</sup>, 이영재<sup>2</sup>, 이원경<sup>2</sup>, 이우정<sup>2</sup>  
<sup>1</sup>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sup>2</sup>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사과정

## Factors Affecting Social Dista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Older Adults with Dementia: Focusing o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Ageism

Doo Ree Kim<sup>1\*</sup>, Seo Young Lee<sup>2</sup>, Song Hee Lee<sup>2</sup>, Ye Ju Lee<sup>2</sup>, Young Jae Lee<sup>2</sup>,  
Won Kyeong Lee<sup>2</sup>, Yoo Jeong Lee<sup>2</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sup>2</sup>Student,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 약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추후, 간호 전문 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 연구로, 자료 수집을 위해 D시의 일개 간호대학 15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치매태도( $r=.53, p<.001$ )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주의( $r=-.41, p<.001$ )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치매환자와의 소통경험에서 '전혀 없다'에 비해 '가끔 있다'와 ( $\beta=.29, p=.012$ ), '자주 있다' ( $\beta=.37, p=.002$ )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치매조기예방에 대한 관심( $\beta=.32, p=.002$ ), 연령주의( $\beta=.36, p=.002$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 변수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설명력은 41.0% 이었다.

주제어 : 치매, 연령주의, 사회적 거리감, 간호대학생,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demented elderly and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responses from 158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ity D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social distance, and dementia attitude towards the demented elderly ( $r = .53, p<.001$ ) showed a statistically correlated relationship, while ageism ( $r = -.41, p<.001$ )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more frequent ( $\beta = .29, p=.012$ ), and second, attention to early prevention of dementia ( $\beta = .32, p=.002$ ) was significan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influential factors on the social distance toward the demented elderly was 41.0%.

Key Words : Dementia, Ageism, Social Distance, Nursing Student, Converg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2017R1C1B5017102).

\*Corresponding Author : Doo Ree Kim(kdr2015@konyang.ac.kr)

Received April 22, 2019

Revised July 1, 2019

Accepted July 20, 2019

Published July 28, 2019

## 1. 서론

2017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은 86.7%이며, 이 중에서도 치매는 퇴행성 질환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이환율 증가가 매우 높은 질병이다[1]. 보건복지부 중앙 치매센터에서 전국 치매 유병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6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10.16%이었으며, 치매노인 인구가 약 75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거의 1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치매는 다른 질병과 달리 기억력장애 뿐 아니라 이해능력, 판단력, 정신행동 증상 등의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으로[2,3], 질병이 진행되면 될 수록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가족 뿐 아니라 돌봄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질병이다[4].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현재까지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을 수립하였다. 이번 제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구현’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 치료, 돌봄,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치매 파트너즈 양성 및 활동지원을 통해 누구나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5].

그 중 노인전문간호사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치매노인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치매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간호대학생은 추후, 간호 전문 인력으로서 임상현장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에게 직접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최근 간호대학생들의 실습현장에서도 치매노인들과 만남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7]. 이에 치매노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노인보다 치매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7], 치매지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 외에 이지은, 장윤정[9]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치매지식으로 나타났다. 장현숙[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노화불안, 역차별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일반 노인에 비해서 더 높다. 따라서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향후 치매 전문 돌봄 인력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치매노인 간호를 수행할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치매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태도, 연령주의 인식을 형성하고, 치매노인 간호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1.1 연구목적

본 연구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이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아직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ver. 3.1.9프로그래를 이용하여 선행연구를 바탕[11]으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설정하여 적용한 결과 141명이었다. 이에 약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하여, 최종 본 연구의 대상자는 158명으로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기입형 설문지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문항, 치매지식 12문항, 치매태도 15문항, 연령주의 40문항, 치매노인의 사회적 거리감 26문항을 포함하여 총 10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3.1 치매지식

치매지식이란 치매에 관한 지식의 보유 정도를 말하며 질병, 증상, 치료, 간호의 4가지 영역의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동영 등[12]이 개발한 치매지식 도구로 총 12문항이며, 정답이면 1점, 오답이면 0점으로 하여, 전체 점수의 범위가 0-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영 등[12]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Chronbach's  $\alpha$  는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3 이었다.

### 2.3.2 치매태도

치매태도란 '치매'라는 질병 또는 수반되는 상황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감정적 태도와 치매 또는 치매로 인한 상황에 대해 갖게 되는 전반적인 행동적 경향성을 의미하는 행동적인 태도를 이르는 것이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송영희[14]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로 개발한 도구를 이영휘[15]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며, 4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송영희[14]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는 .74 이었으며, 이영휘[15]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는 .73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8 이었다.

### 2.3.3 연령주의

연령주의란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특정 범주, 특히 연령을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사람에 대해 부당하게 처우,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Palmore[16]의 연령주의 차원 기준

으로 분류된 도구 문항을 바탕으로 지은정[17]이 변안한 연령주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며, 7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연령주의에 대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Palmore[16]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는 .8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는 .91 이었다.

### 2.3.4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이란 '특정한 지위적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속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근해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Choi와 Park[18]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측정도구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의지 및 접촉과 관련된 문항들을 박미정 외[11]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Choi와 Park[18]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는 .75 이었으며, 박미정 외[11]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는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7 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K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최종 연구수행관련 통지서를 받고 수행하였다(KYU: 2018-097-01).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D시에 소재하는 일개간호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설문조사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서 연구보조원 1명이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소요시간, 연구대상자의 이익과 위험 등 윤리적 보호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설명을 듣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서면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본 연구의 설문은 자가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설명문에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강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언제라도 본 연구수행을 중단 및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지 수거는 연구보조원이 직접 설문지와 동의서가 분리된 A4박스에 담아 과대표를 통해 수거하여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와 사후검정술(Scheffe)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치매노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 Table 2 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132명(83.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학년이 61명(38.6%), 2학년 97명(61.4%)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이 96명(62.7%)이었으며,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대상자가 12명(7.6%),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가 128명(81.0%)이었다. 가족 중 치매 질병으로 사망 경험은 '경험이 없다'가 102명(64.6%)이었으며, 치매환자와의 소통경험은 '전혀 없다'가 63명(39.9%), '별로 없다'가 52명(32.9%), '가끔 있다'가 43명(27.2%)순 이었다. 치매환자를 위한 봉사경험으로는 '경험이 있다'가 40명(25.3%), '경험이 없다'가 118명(74.7%)이었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봉사기회가 있다면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참석하고 싶다'가 117명(74.1%)이었다. 치매조기예방에 대한 관심정도에는 '관심이 있다'가 77명(48.7%), '보통 이다' 60명(38.0%), '관심이 없다' 21명(13.3%)순 이었다. 평소 조부모님 이외에 65세 이상 아는 노인이 '있다'가 48명(30.4%), '없다'가 110명(69.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부모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

다'가 116명(7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매환자와의 소통경험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52, p=.001$ ). 본 연구대상자는 치매환자와의 소통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종종 있는 대상자가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환자의 봉사활동에 참여의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6.25, p=.003$ ). 치매노인에 대한 봉사를 가능하면 참석하고 싶다고 표현한 대상자가 관심 없다고 표현한 대상자보다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기치매예방에 관심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F=5.86, p=.004$ ). 이 또한 조기치매예방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가 관심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8

Variables	Categories	n(%)	t/F(p)
Gender	Male	26(16.5)	.50 (.280)
	Female	132(83.5)	
Grade	1 <sup>st</sup>	61(38.6)	-.33 (.767)
	2 <sup>nd</sup>	97(61.4)	
Age(yr)	<20	57(37.3)	1.12 (.785)
	20≤	96(62.7)	
Elderly family living together	Yes	12(7.6)	.70 (.720)
	No	128(81.0)	
Dementia family dies	Yes	56(35.4)	1.42 (.001)
	No	102(64.6)	
Communication with dementia patient*	Not at all <sup>a</sup>	63(39.9)	11.52 (.001) a<c
	Sometimes <sup>b</sup>	52(32.9)	
	Often <sup>c</sup>	43(27.2)	
Dementia patient service experience	Yes	40(25.3)	2.74 (.623)
	No	118(74.7)	
Intention to participate in dementia service*	I don't want <sup>a</sup>	15(9.5)	6.25 (.003) a<c
	I want to <sup>b</sup>	117(74.1)	
	I want very much <sup>c</sup>	26(16.5)	
Early prevention of dementia*	Not interested <sup>d</sup>	21(13.3)	5.86 (.004) a<c
	Interest <sup>b</sup>	60(38.0)	
	Active involve <sup>c</sup>	77(48.7)	
An old man who knows	Yes	48(30.4)	1.72 (.887)
	No	110(69.6)	
Thinking about grandparents	Positive	116(73.4)	1.64 (.198)
	None	38(24.1)	
	Negative	4(2.5)	

\* Scheffe.

Table 2. Difference of Social distance from dementia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8

Variables	Categories	M±SD
Gender	Male	3.36±.33
	Female	3.31±.40
Grade	1 <sup>st</sup>	3.31±.37
	2 <sup>nd</sup>	3.33±.41
Age(yr)	<20	3.37±.38
	20≤	3.29±.39
Elderly family living together	Yes	3.33±.40
	No	3.30±.37
Dementia family dies	Yes	3.39±.49
	No	3.28±.32
Communication with dementia patient	Not at all	3.16±.26
	Sometimes	3.33±.37
	Often	3.48±.44
Dementia patient service experience	Yes	3.48±.42
	No	3.27±.37
Intention to participate in dementia service	I don't want	3.06±.28
	I want to	3.31±.37
	I want very much	3.53±.44
Early prevention of dementia	Not interested	3.04±.30
	Interest	3.32±.30
	Active involve	3.40±.44
An old man who knows	Yes	3.41±.37
	No	3.28±.40
Thinking about grandparents	Positive	3.36±.40
	None	3.23±.36
	Negative	3.17±.19

### 3.2 대상자의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 사회적 거리감의 인식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지식은 12점 만점에 8.39(SD=2.28) 점이었다. 치매태도는 4점 만점에 3.23(SD=0.34)점 이었으며, 연령주의는 7점 만점에 4.48(SD=.060)점 이었다. 치매노인 사회적 거리감은 5점 만점에 3.32(SD=0.39)점 이었다. Table 3

Table 3.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Ageism, Social distance from dementia of nursing students

N=158

Variaes	M±SD	Range
Dementia Knowledge(DK)	8.39±2.28	0-12
Dementia Attitude(DA)	3.23±0.34	1-4
Ageism(AG)	4.48±0.60	1-7
Social Distance from Dementia(SDD)	3.32±0.39	1-5

### 3.3 대상자의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인식과의 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치매태도( $r=.53, p<.001$ )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주의( $r=-.41, p<.001$ )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Ageism, Social distance from dementia

N=158

	DK	DA	AG
	r(p)	r(p)	r(p)
DA	.30**		
AG	.21*	.46**	
SDD	.17	.53**	-.41**

\*p&lt;0.05, \*\*p&lt;0.001

DK: Dementia Knowledge, DA: Dementia Attitude  
AG: Ageism, SDD: Social Distance from Dementia

### 3.4 대상자의 치매노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치매노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가족 중 치매환자 사망경험'과 '치매환자와의 소통경험', '치매환자 봉사기회', '치매조기 예방에 대한 관심'을 영향요인 변수로 포함하였고, 치매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를 함께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치매환자와의 소통경험과 치매환자의 봉사기회, 치매조기 예방에 대한 관심은 명목척도로 회귀분석을 위해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서로 공선성이 있는 변수는 없었다. 독립변수 사이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49~.87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15~2.06으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9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치매노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위한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68$   $p<.001$ ),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요인으로는 치매환자와의 소통경험은 '전혀 없다'에 비해 '가끔 있다'와 ( $\beta=.29$   $p=.012$ ), '자주 있다' 가( $\beta=.37$   $p=.002$ )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치매조기예방에 대한 관심 ( $\beta=.32$   $p=.002$ )과 연령주의( $\beta=.36$   $p=.002$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 변수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설명력은 41.0%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e from dementia in nursing students

N=158

	B	SE	$\beta$	t	p
Constant	34.85	9.30		3.75	.000
Dementia death	.95	1.74	.06	.55	.587
Communication_1	4.96	1.91	.29	2.60	.012
Communication_2	6.97	2.15	.37	3.25	.002
Prevention_2	6.21	1.92	.32	3.23	.002
Volunteer_1	-.48	2.51	-.02	-.19	.848
Volunteer_2	2.62	2.54	.11	1.03	.306
Dementia attitude	.34	.22	.19	1.57	.122
Ageism	5.37	1.69	.36	3.18	.002
<b><math>R^2=.48</math>, Adjusted <math>R^2=.41</math>, <math>F=6.68</math>, <math>p&lt;.001</math></b>					

#### 4. 논의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간호대학 1, 2학년 학생의 치매 지식, 치매태도, 연령주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와 이들의 관계를 논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추후,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관심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치매지식은 12점 만점에 8.39( $SD=2.28$ )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8.17점, 2학년이 8.5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정하[19] 연구에서 간호대학 1학년이 9.67점, 2학년이 10.0점 이었던 것에 비해 낮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치매관련 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이 25.3% 이었던 것에 비해 신정하[19] 연구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봄 경험이 있는 학생이 42.6%로 치매환자와의 만남의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도 및 지식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문항별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 '치매에 걸리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위험이 나아진다' 순으로 각각 90.5%, 84.2%, 82.3%로 나타났다. 이는 신정하[19]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치매위험이 나아진다.', '치매환자는 판단력이 없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병해도 된다.'가 각각 95.5%, 95.5%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항은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가 각각 오답률 77.2%, 60%로 나타났다. 이는 신정하[19]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정하[19]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그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상자의 학년의 범위가 상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위한 1, 2학년의 치매노인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치매예방 및 치료와 치매원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태도는 본 연구에서 4점 만점에 3.23( $SD=0.34$ )으로 나타났다. 조진영[20]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74( $SD=.59$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간호학 전공인 간호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치매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대상자 및 질병을 다루는 전공수업을 받는 것에 비해 일반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은 치매에 대한 질환을 직접 또는 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연령주의는 본 연구에서 7점 만점에 4.48( $SD=0.60$ )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령주의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여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지은정[21] 연구에서 연령대별로 연령주의를 조사한 결과 20대는 4.39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지은정[21]의 연구에서는 20-60대까지 연령주의 실태를 평가한 결과 7점 만점에 평균 4.44점으로 이는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63.4점으로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연령주의가 다소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연령주의 또한 노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주의에 가장 부정적인 문항들은 '노인은 당당하다.', '노년기에도 삶이 의미 있는 역할이 있다.', '노인은 인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 '노인은 다른 사회구성원과 같은 권리가 있다.' 등의 문항이 순

서대로 가장 연령주의의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노인간호 교육에서 노년기의 역할 인식에 대한 교육 및 강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본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32(SD=0.39)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박미정 외[11] 연구에서는 3.56(SD=0.41)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임상실습을 수행하지 않은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박미정 외[11]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이 약 57.2%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실습경험을 통해서 저학년들 보다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치매태도( $r=.53, p<.001$ )이었으며, 연령주의( $r=-.41, p<.001$ )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박미정 외[11] 연구에서 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치매태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로 해석된다. 노효련 외[22] 연구에서 Q방법론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대학생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회와 개인 공동책임형으로 치매를 보는 유형에서 젊었을 때부터 치매를 대비하며, 치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치매환자 뿐 아니라 치매 예방 및 국가적인 치매 정책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주의와 치매노인의 사회적 거리감의 부적상관관계 또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또한 서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위해서는 치매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매환자와의 소통경험과 치매조기예방에 대한 관심, 연령주의로 나타났다. 조상희, 김은하[23] 연구에서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파트너로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태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들에게 치매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파트너 활동을 통해 치매예방조기검진, 치매캠페인 활동 등, 치매노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치매환자와의 소통이 전혀 없는 연구대상자에 비해 가끔 있거나( $\beta=.29, p=.012$ ), 자주 있는 것( $\beta=.37, p=.002$ )이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후, 간호대학생들이 치매환자와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 또는 치매파트너 활동을 통해 치매예방 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된 치료 및 증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영향요인으로는 치매조기 예방에 대한 관심( $\beta=.32, p=.002$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일선 외[24] 연구에서 치매지원센터 간호사의 지식, 태도, 간호 부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매지식이 높을수록 간호 부담감이 낮았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아 본 연구와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치매조기 예방에 대한 관심은 치매지식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는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 영향요인으로는 연령주의( $\beta=.36, p=.002$ )로 나타났다. 연령주의 즉, 노인 차별이란 나이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차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매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요인으로 연령주의 변수를 포함하여 진행한 연구는 없어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유사한 연구로 이지은, 장윤정[9] 연구에서는 초중고대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또한 김정희[25]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노인, 치매노인 모두에게 유연성, 활력성, 관용성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치매노인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뿐 아니라 노인이나 노인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치매노인에게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관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영향요인으로 연령주의가 유의한 결과를 보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추후, 치매환자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한 전문적 의료 인력으로 간호사는 임상,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추후, 간호 전문 인력으로 역할을 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았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치매전문교육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추후, 간호대학생의 치매전문교육과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치매환자와의 소통경험, 치매조기예방에 대한 관심, 연령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1.0%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위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와의 소통 기회, 치매조기 예방에 대한 교육, 연령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매환자와의 소통의 기회 및 치매조기 예방에 대한 지식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최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는 대학생 치매파트너즈 활동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연령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인간호 이론 및 실습 교육에 이와 관련된 주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간호대학생을 위한 치매교육프로그램을 각 학년별로 단계에 맞추어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의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K. W. Kim et al. (2011). A nationwide surve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23(2), 281-91.
- [2] J. Cerejeira, L. Lagarto & E. B. Muka etova-Ladinska. (2012).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Front Neurology*, 3(1), 73.
- [3] J. Allen & J. Close. (2010). The NICHE geriatric resource nurse model: improving the care of older adul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Geriatric Nursing*, 31(2), 128-132.
- [4] S. J. Katherine, M. B. David & A. L. Snow & N. L. Wilson & R. Morgan & W. J. Looman & C. McCarthy & M. E. Kunik. (2011). Partners in dementia care: a care coordination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with dementia and their family caregivers. *Gerontol*, 51(2), 261-272.
-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Study on the Third Dementia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2016-20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mohw.go.kr/>
- [6] G. R. Hong & K. O. Park & E. M. Oh. (2018). Assessment and Suggestion on Strategies to Overcome Dementia and Its Tasks: Nursing Perspectiv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8(1), 37-63.
- [7] J. H. Kim. (2007).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Among Baccalaureate Ju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4), 601-610.
- [8] M. S. Kwon & J. H. Lee. (2017).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9), 177-185.
- [9] J. E. Lee & Y. J. Jang. (2016).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Dementi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6(1), 233-260.
- [10] H. S. Jang. (2015).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lderly Discrimination in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cheongnam-do.
- [11] M. J. Park, H. K. Moon & D. N. Oh. (2017). Effects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on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31(3), 554-566.
- [12] D. Y. Lee, S. J. Lee, S. H. Kim & J. H. Kim. (2015). *Survey on dementia awareness and education needs of employees at Seoul-type day care center*.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http://www.seouldementia.or.kr/>
- [13] H. J. Kim & J. S. Yang. (2016).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Care Givers' Job-Relation Feature, the Attitude Toward Dementia and Confidence of Dementia Car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6(1), 137-149.
- [14] Y. H. Song. (2002).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Attitude of Dementia: for the Middle aged*. Master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15] Y. H. Lee. (2007).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on knowledge, attitude and change of prevention of dementia in low income middle-aged women*. Incheon metropolitan city Namgu dementia center annual report.
- [16] Palmore & B. Erdman. (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Second Edi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17] E. J. Ji, J. Kim & D. K. Son. (2016).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geism Scale*.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ISBN 979-11-85663-25-8.
- [18] K. A. Choi & S. H. Park. (2004). Effects of the link program between special and ordinary school on high school students'social distance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 20(1), 279-314.

- [19] J. H. Shin. (2014). *Knowledge about dementia nursing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Jeollanam-do.
- [20] J. Y. Cho. (2016).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toward Dementia in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257-265. DOI : <http://doi.org/10.14400/JDC.2016.14.12.257>
- [21] E. J. Ji. (2018).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Ageism in Korea: Focused on Labor Market*.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 [22] H. R. Noh, Y. J. Heo, H. J. Kim & Y. J. Kim. (2013). A Q-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Dementia.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Daegu University*, 52(3), 301-317.
- [23] S. H. Cho & E. H. Kim. (2018). A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Dementia Partner Nursing Students on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317-323.
- [24] I. S. Ko, E. K. Han & D. R. Kim. (2017). Relationship among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Care Burden of Nurses in Center for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67-75.
- [25] J. H. Kim. (2007).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Among Baccalaureate Ju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4), 601-610.

김 두 리(Doo Ree Kim)

[장학원]



- 2007년 3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학사)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현재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
- 관심분야 : 치매, 노인, 삶의 질, 극복력

· E-Mail : [kdr2015@konyang.ac.kr](mailto:kdr2015@konyang.ac.kr)

이 서 영(Seo Young Lee)

[학생회원]



- 2017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재학생
- 관심분야 : 간호대학생, 치매
- E-Mail : [npp611@naver.com](mailto:npp611@naver.com)

이 송 희(Song Hee Lee)

[학생회원]



- 2017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 관심분야 : 간호대학생, 치매
- E-Mail : [thddl525@naver.com](mailto:thddl525@naver.com)

이 예 주(Ye Ju Lee)

[학생회원]



- 2017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 관심분야 : 간호대학생, 치매
- E-Mail : [dds9962@naver.com](mailto:dds9962@naver.com)

이 영 재(Young jae Lee)

[학생회원]



- 2007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 관심분야 : 간호대학생, 치매
- E-Mail : [dudwo2868@gmail.com](mailto:dudwo2868@gmail.com)

이 원 경(Won Kyeong Lee)

[학생회원]



- 2017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 관심분야 : 간호대학생, 치매
- E-Mail : [dusrud1176@naver.com](mailto:dusrud1176@naver.com)

이 유 정(Yoo Jeong Lee)

[학생회원]



- 2017년 3월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 관심분야 : 간호대학생, 치매
- E-Mail : [uuuuu101@naver.com](mailto:uuuuu101@naver.com)